ECONOMY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광주신세계, 성년의 날 맞이 젠지세대 겨냥 선물 기획전

㈜광주신세계가 성년의 날(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을 맞아 젠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고객에 맞춰 향수는 물론 잡화와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을 마련, 고객몰이에 나서 눈길을 끈다.

15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젠지들의 놀이터'로 부상한 플레이 스팟에서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는 성년의 날을 앞두고 플라워 가디건 티가 인기를 끌고 있다.

마리떼 여성 플라워 가디건 티는 꽃무늬 패턴에 목과 소매에 레이스 모양이 더해져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킨다.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는 다양한 상황에 연출하기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어 실용적인 성년의 날 선물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관 2층에는 성년의 날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향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추천하는 품목은 프리지아 향수다. 깔끔한 프리지아에 은은한 머스크 향이 더해져 기분 좋은 순간을 만들어낸다. 같은 층 '바이레도'는 화이트 로즈와 핑크 페퍼의 은은향 향이 특징인 블랑쉬 모델이 인기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에서 만날 수 있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는 성년의 날을 앞두고 플라워 가디건 티를 추천한다.

전남 숙박상품 홈쇼핑 판매 "체류형 관광 확대"

도, 전남창경센터 손잡고 16일 GS채널 생방송
여수 라마다·유탑 마리나·고흥 썬밸리 등 소개

전남도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전남 관광·숙박상품'을 홈쇼핑을 통해 마케팅한다.

이번 전남 관광·숙박상품은 여수 라마다 프라자 바이 윈덤과 유탑 마리나 호텔&리조트, 고흥 썬밸리리조트로 구성되며, 1박 기준 12만 9000원에 조식 뷔페 2인 이용권이 포함된다.

여수 라마다 프라자 바이 윈덤은 루프탑 집라인과 인피니티풀 등 부대시설 이용 혜택이,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리조트는 주간 요트투어와 아쿠아플라넷 할인권이, 고흥 썬밸리리조트는 해수사우나 이용권 2매가 제공된다.

상품 판매는 오는 16일 오후 11시 55분부터 70분간 GS홈쇼핑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홈쇼핑을 통한 전남 관광·숙박상품은 관광객이 전남에서 지역 자연과 관광자원을 체험토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촉진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TV홈쇼핑 관광상품 판매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객 4700여명을 유치하고, 3억 6000만 원 상당의 판매액을 달성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 낭만바다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구매 개선방안 모색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김우환 광주조달청장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5일 지역 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5일 지역 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김우환 광주조달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공구매제도 관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회피금지 규정 정비, 조합 공동브랜드 제품 MAS 참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공공조달시장 참여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제도 개선, MAS 계약단가 조정 시 협동조합 자료 활용,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적극 확대,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 졸업앨범 품목 MAS 활용 개선 등이 건의됐다.

김우환 광주조달청장은 "논의된 애로사항 등은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구매 확대와 '공공조달 길잡이',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 등을 통해 지역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중소기업은 판로가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하며, 요즘같은 불경기에 공공판로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CR리츠 2호 출시…광양 미분양 275가구 매입

건설사 유동성 위기 해법 기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잇따라 출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은 전날 국토부에 전남 광양 소재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 위한 CR리츠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 288가구를 매입하는 1호 CR리츠가 영업 등록을 마친 지 20여일 만이다.

JB자산운용은 1호 CR리츠도 운용하고 있다. 2호 CR리츠는 한라건설이 시공한 광양 아파트 332가구 중 미분양된 274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CR리츠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가의 70%까지 모기지 보증을 제공한다.

2호 CR리츠에는 기관투자자 두 곳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1호 CR리츠의 경우 외부 투자자 참여 없이 매입 대상 미분양 아파트 시공사인 우방의 100% 자회사가 전액을 출자했다.

우방은 이 아파트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1255억원을 떠안은 상태다.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으면 높은 PF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감당하거나, 선순위채권자인 은행의 주택 경매 처분으로 손실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자본을 투입해 시간을 벌기로 한 것이다.

2호 CR리츠는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구와 경주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CR리츠 2개도 영업 등록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경총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을"

대선공약 반영 촉구…재입국 없이 5년 연장 등 필요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의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E-9(고용허가제) 비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과 비율이 급격히 증가, 12만명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허가제도의 경직된 운영 및 엄격한 규제 관리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기업이 한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및 방문 취업(H-2)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그중 E-9 비자의 경우 첫 입국 후 3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며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활동 기간 노동부 발급의 연장 확인서를 받아 고용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 총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여기에 재입국 특별 고용 허가를 받으면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어 E-9 비자로 10년 가까이 근무할 수 있는 구조라고 광주경총은 설명했다.

광주경총은 이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며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 재고용 또는 연장 시 규제 완화, 특례제도 개선 등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광주경총은 지적했다.

광주경총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중소기업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재입국 후 기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안정을 위해서는 첫 입국 후 5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고 고용 기간 만료 후 고용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재입국 없이 고용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입국 후 재취업은 사업 중단 및 폐업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